中國語文學 第85輯(2020. 12) 121-145쪽

# 보문소 之에 대한 비교언어학적 접근*

박 향 란**

<目 次>

Ⅰ. 들어가는 말
Ⅱ. 보문소의 개념
Ⅲ. 보문소 之의 특수성
Ⅳ. 보문소 之와 영어, 한국어 보문소와의 대응관계
Ⅴ. 보문소 之의 기원과 소멸
Ⅵ. 나오는 말

## Ⅰ. 들어가는 말

고대 중국어는 주술구조가 문장 성분이 될 때 주어와 술어 사이에 之가 삽입되는 경향이 있다. 주로 주어나 화제, 목적어, 판단문의 서술어 혹은 부사어 등으로 나타난다.

(1) 王之好樂甚, 則齊國其庶幾乎? (孟子·梁惠王下)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심이 심하시면 제나라는 거의 다스려질 것입니다.
(2) 百姓皆以王爲愛也 ; 臣固知王之不忍也. (孟子·梁惠王上)
백성들은 모두 왕이 아까워한다고 여기지만 신은 진실로 왕이 차마 어쩌지 못함을 압니다.
(3)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孟子·梁惠王上)
산 자를 봉양하고 죽은 자를 장례치름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왕도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B5A07094614)
**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 연구초빙교수

www.kci.go.kr

의 시작입니다.

(4) 孔子之仕於魯也, 魯人獵較, 孔子亦獵較. (孟子·萬章下)
공자께서 노나라에서 벼슬하실 때 노나라 사람이 사냥꺼리를 서로 비교하는 싸움에 공자도 함께 어울렸습니다.

(5) 君子之於物也, 愛之而弗仁. 於民也, 仁之而弗親. (孟子·盡心上)
군자는 사물에 있어 사랑하지만 인하지 않고, 백성을 대함에 인하지만 친하지는 않다.

위 용법에 쓰인 之의 기능에 대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의 논의가 있었지만 여전히 의론이 분분하다. 초기에는 대체로 문장을 명사적으로 만들어주는 명사화표지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나 고대 중국어에서 주술구조는 之가 없이도 주어나 목적어가 될 수 있고 (4~5)처럼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 명사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1] 최근에는 현대 언어학에서 보문소(complementizer)가 수행하는 역할과 유사하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보문소는 문장 안에 내포되어 보충어 구실을 하는 보문(complemental clause)을 도입하는 표지로 기존에는 접속사로 불리었으나 생성문법에서 보문소라는 용어로 대체되어 통사론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본고 역시 고대 중국어에서 주술구조에 출현하는 之를 보문소의 일종으로 보고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논의해보고자 한다.[2] 이는 다양한 언어들을 비교하여 인간 언어의 보편성과 개별성을 밝히는 언어 유형론 연구와 맞닿아있다. 중국어는 SVO어순과 SOV어순의 특징을 동시에 갖는 매우

1) 명사화 관련 표지로 보는 관점은 王力(1958/1980), 朱德熙(1983), 王洪君(1987) 등이 대표적이고 吕叔湘(1942/1982), 何樂士(1989/2004)는 문장의 독립성을 없애주는 기능 혹은 연결 기능을 하는 접속사의 일종으로 보았다.

2) 비교언어학은 역사적으로 같은 조상에서 갈라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둘 이상 언어를 비교하여 친족 관계를 밝히고 공통의 조어를 재구하는 역사-비교언어학(comparative linguistics)과 외국어 교육 등을 위해 어족이 다른 두 언어의 요소를 비교하는 대조언어학(contrastive linguistics)을 지칭하기도 한다. 이 외에도 범언어적 보편성을 밝히려는 유형론적 연구에서도 비교가 진행되는데 본고에서는 주로 고대 중국어와 한국어, 영어만을 비교 대상으로 하여 유형론보다는 비교언어학(cross-linguistic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www.kci.go.kr

특수한 언어에 속한다. 따라서 SVO어순인 영어와 SOV어순인 한국어 보문소와 비교해보면 보문소로서 之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고대 중국어는 현대 영어와 어순 방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비교 대상으로 적합하다.

아래에서는 먼저 보문소의 개념을 소개하여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영어와 한국어의 예를 통해 보문소의 정의와 범위 및 출현 위치 등을 살펴보고 범언어적 보편성을 알아본다. 이를 토대로 고대 중국어에서 之가 보문소로서 갖는 특수성에 대해서 논의해본다. 다음으로 선진시기를 대표하는 문헌인 ≪孟子≫에서 之가 보문소로 사용된 용례를 찾아 영어, 한국어 번역문과 비교해보고 세 언어 간 보문소의 대응 관계를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보문소 之의 기원과 소멸 원인에 대해 고찰해본다.

## Ⅱ. 보문소의 개념

더 많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문장을 확장하는 것은 인류 언어의 보편적 특징이다. 문장을 확장하는 방법은 두 문장을 대등하게 연결하는 접속과 한 문장을 다른 문장 안에 내포시키는 종속이 있다.[3] 종속은 상위절인 주절에 하위절인 종속절이 포함되는 것으로 언어 유형론에서는 출현 위치에 따라 보문(절)(complemental clause), 관형절(attributive clause), 부사절(adverbial clause)로 나눈다.[4]

보문은 주어나 목적어, 보어와 같이 서술어의 논항이 되며 명사절로도

3) 한국어학계에서는 종속과 내포를 구별하기도 하는데 내포는 한 문장이 다른 문장 안의 한 성분(즉 주어나 목적어, 관형어)으로 포함되는 것이고 종속은 접속의 하위부류로 두 문장이 대등하게 병렬된 대등 접속과는 달리 시간, 이유, 목적, 가정, 조건 등의 의미 관계가 주종관계로 연결된 절을 가리킨다. 언어 유형론에서 종속은 내포를 포함하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명사절, 관형절, 부사절을 모두 포함한다.

4) 언어 유형론에서 종속절의 분류 및 관련 설명은 Whaley(1997/2008), 조경화(2019)를 참조하였다.

www.kci.go.kr

부른다. 관형절은 명사를 수식하는 절로 다시 관계절(relative clause)과 동격 관형절로 구분된다. 관형절 속의 어떤 문장 성분이 꾸밈을 받는 명사와 공지시 관계를 형성하여 생략되면 관계절이고 관형절 안의 어떤 성분도 꾸밈을 받는 명사와 공지시에 있지 않고 생략된 성분이 없으면 동격 관형절로 본다.[5] 부사절은 주절에 배경 맥락을 제공하는 것으로 시간, 방식, 목적, 조건 등의 다양한 부가 의미를 전달한다.

따라서 전통 문법과 언어 유형론에서 보문은 아래와 같이 주어, 목적어, 보어자리에 출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이때 that은 상위절인 주절과 종속절인 보문을 연결하는 표지로 쓰인다.

(6) a. **That** she is popular is true. (주어)[6]
b. I found **(that)** my wallet was no longer with me. (목적어)
c. The important thing is **that** you did your best. (보어)

그런데 변형생성문법이 도입되면서 보문의 외연이 다소 확대되었다. 기존에 보문으로 불리던 명사절과 관계절을 제외한 동격 관형절 및 부사절 등 문장 안에 내포되는 대부분의 문장을 보문으로 간주하였다.[7] 이때 보문을 내포하는 상위절을 모문이라고도 부르며 모문인 주절과 새롭게 보문으로 편입되어 종속절을 이어주는 표지를 보문소로 부르게 되었다.[8]

5) 예컨대 'the girl who I met yesterday'은 관계절이고 'the fact that I met a girl yesterday'는 동격 관형절이다. 둘 다 명사를 수식하지만 관계절은 핵어 명사(head noun)인 'the girl'이 관계절 안의 목적어 성분으로 환원될 수 있지만 'the fact'는 관형절 안의 어떤 문장 성분으로도 환원될 수 없다.

6) 본장 (6~7)의 영어 예문은 ≪THIS IS GRAMMAR≫, 중급 1·2편에서 인용하였다.

7) 동격 관형절은 생략되면 문장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보문으로 보고 관계절은 생략될 수 있는 수의적인 성분으로 보아 보문으로 보지 않는다. 예컨대 본문(8-d)에서 '그가 곧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에서 '소식' 앞에 내용절은 필수적인 성분으로 생략되기 어렵다.

8) 보문소라는 용어는 Rosenbaum(1967)이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는 chomsky (1958)가 제안한 동사보문(verb complement)과 명사화(nominalization)를 통합

www.kci.go.kr

영어에서는 that, for-to, -ing, when, why, where, how, what, if, whether, as, then 등이 보문을 도입하는 보문소로 볼 수 있다. 보문은 정형절(finite Clause)과 비정형절(non-finite clause)로 실현된다. 영어에서 정형절은 동사의 굴절 여부로 판단하는데 정형절은 시제나 주술 일치를 위해 동사가 굴절되고 비정형절은 생략된다.[9)]

(7) a. I was aware of the fact **that** she graduated from the Harvard.
b. **Whether** he will come or not is up to you.
c. My friend wonders **if** I'll go to the party.
d. I don't want my mom **to** know about this.
e. It was lucky **for** me **to** meet you.
f. I can't understand **his** behav**ing** in such a rude way.
g. **When** I called his name, she looked at me.
h. I can't buy the car **because** it's too expensive.

(7a)에서 that은 the fact를 꾸며주는 동격 관형절의 보문소로 쓰였다. (7b)whether과 (7c)if는 각각 주어와 목적어절을 이끄는 보문소로 의문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7d)to는 부정사절을 이끄는 보문소이다. (7e)은 보문소 for 뒤에 의미상 주어와 to부정사가 결합되었다. (7f)는 -ing동명사절로 행위자가 소유격으로 나타난다. (7g)when과 (7h)because은 각각 시간과 원인 의미의 부사절 보문소로 쓰였다. 이때 that, whether, if, when처럼 의미상 주어가 주격으로 나타나고 시제가 표시되면 정형절로 보고 for-to, -ing처럼 의미상 주어가 대격 혹은 소유격으로 나타나고 시제표지가 없으면 비정형절로 본다.

한국어는 -음, -기, (-ㄴ,ㄹ) 것, -는, -고, -지, -이, -도록 등의 보문

하여 보문구조를 명사구(NP) 보문과 동사구(VP) 보문으로 구분하였다. 신효수(2018) 참조.

9) 어떤 보문소와 절을 선택하는 가는 상위동사의 의미 제약, 보문소의 특징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 강혁진(2014), 김상기(2006), 신효수(2018), 최규정(2005) 참조.

www.kci.go.kr

소가 존재한다.[10] 한국어에서는 주로 어미의 변화를 동반하는데 영어가 정형절과 비정형절을 구분하듯이 시상 어미와 함께 종결 어미를 완전히 보존하고 있는 것을 완형(完型)보문으로 생략된 것을 불구(不具)보문으로 부르기도 한다.

(8) a. 그는 돈이 많**음**이 분명하다.
b. 아이들이 눈이 오**기**를 기다린다.
c. 나는 그가 착하다**는 것**을 알았다.
d. 그가 곧 한국을 떠난다**는** 소식을 들었다.
e. 갈릴레이는 지구가 돈다**고** 주장했다.
f. 이곳에 들어오**지** 마시오.
g. 그는 말도 없**이** 떠나버렸다.
h. 영희는 발에 땀이 나**도록** 달렸다.

(8a)-음과 (8b)-기는 명사절을 이끄는 대표적인 보문소로 주어와 목적어절에 나타난다. (8c)-ㄴ/-ㄹ은 의존명사 것과 결합되어 명사화 보문소로 쓰인다. (8d)-ㄴ/는은 사실, 소문, 소식 등 명사 앞에 오는 동격 관계절의 보문소이다. (8e)-고는 한국어 완형 보문에 나타나는 보문소로 주장, 약속이나 명령 등의 발화내용을 인용한다. (8f)-지는 -마시오라는 보조동사 앞에 쓰였고 (8g~h)-이, -도록은 부사절을 이끄는 보문소로 쓰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범언어적으로 보문소의 출현 위치는 동사 목적어 어순과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이다.[11] 이는 한 언어가 OV어순인지 VO어순인지에 따라 전·후치사의 선택이 달라지는 것과 유사하다.[12] 대체로 핵어

10) 한국어 보문과 보문소의 정의 및 명칭, 범위 등은 학자들마다 견해차이가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주로 남기심·고영근(1985/2007), 이익섭·채완(1999/2009), 박상수(2012), 안명철(1999), 정주리(1995) 등을 참조하였다.

11) 보문소 및 보문(종속절)의 출현 위치는 陸丙甫·金立鑫(2018:122~123)을 참조하였다.

12) 즉 핵어 후치형인 OV언어에서는 주로 후치사가 선호되고 핵어 전치형인 VO언어에서는 전치사가 선호된다. 金立鑫(2011:304) 참조.

www.kci.go.kr

전치형(head initial) VO언어는 보문소가 보문 앞에 나타나고 핵어 후치형(head final) OV언어에서는 보문 뒤에 나타난다. 따라서 VO언어인 영어는 that, whether, if 등이 보문이 시작되는 부분에 위치하고 OV언어인 한국어는 -음, -기 등이 보문이 끝나는 부분에 나타난다. 다만 영어처럼 비전형적인 VO어순의 경우 -ing처럼 동사 뒤에 보문소가 오기도 한다.

보문이 나타나는 위치 역시 문장에서 핵의 위치와 대개 일치한다. 영어는 핵어 전치형 VO언어로 동격 관형절이 명사 뒤에 나타나고 핵어 후치형 OV언어인 한국어는 명사 앞에 나타난다. 부사절의 경우 OV언어는 동사에 전치되는 경향이 강하고 VO언어는 후치되는 경향이 강하다. 다만 VO언어인 영어는 when, because, if절 등이 주절의 앞뒤에 비교적 자유롭게 위치한다. 왜냐하면 종속절인 부사절은 주절과의 관계가 비교적 느슨하고 시간, 이유, 조건과 같은 배경 요소는 인지적으로 문두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13]

따라서 보문과 보문소는 OV어순인지 VO어순인지에 따라 목적어절에서 아래와 같이 배치된다. 이때 보문소는 주절과 종속절을 경계짓는 동시에 두 절을 이어준다. 이는 두 문장 성분을 연결하는 표지는 둘 사이에 출현한다는 연계항 중심 원리에 부합한다.

(9) VO언어: 주절(동사)+보문소+종속절
OV언어: 종속절+보문소+주절(동사)

## Ⅲ. 보문소 之의 특수성

劉丹青(2005)은 유형론적 관점에서 종속절(從屬小句)의 개념을 소개하여 중국어 문법 연구에 적용하였다. 중국어 종속절 역시 보문(補足語從句), 관형절(定語從句), 부사절(狀語從句)로 나눌 수 있으며 보문은 다시 주어

13) Greenberg(1963)의 보편성 14에 따르면 대체로 조건절이 결과절에 선행한다.

www.kci.go.kr

절(主語從句), 목적어절(賓語從句), 서술어절(表語從句)로 구분된다. 그는 보문을 이끄는 보문소를 標句詞로 명명하고 之와 所를 예로 들었다. 특히 보문소는 보문의 양 끝단에 위치하며 주절과 연결되는데 비해 之와 所는 종속절 내부인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삽입되는 매우 특수한 경우로 보았다. 다만 그는 之가 주어, 목적어와 같이 서술어의 논항으로 출현하는 좁은 의미의 보문 즉 명사절에 나타나는 경우만 논하고 관형절 및 부사절에 나타나는 경우는 간과하였다.[14] 때문에 보문소 之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분석이 부족하였다.

田源·徐杰(2016)은 주어나 목적어처럼 논항으로 쓰이는 좁은 의미의 명사절 보문 외에 부사절 즉 복문의 分句에 사용되는 之 역시 종속절에 사용되는 보문소로 보았다는 점에서 劉丹青의 견해에서 한층 발전하였다.[15] 그들은 보문소의 자질을 [±종속], [±정형], [±의문]으로 나누고 之는 [+종속], [+정형], [−의문]의 속성을 지닌다고 보았다. 때문에 that과 공통점이 많은데 둘 다 시상의미를 포함하는 정형절에 나타나고, 주어나 목적어와 같은 논항에 삽입될 때 강제성을 띄지 않으며, 지시대명사에서 보문소로 문법화 되었다. 하지만 that은 보문 앞에 위치하고 주어와 목적어와 같은 서술어의 논항으로만 출현하는데 비해 之는 보문의 내부인 주어 뒤 동사 앞(謂頭)에 위치하고 복문의 分句에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그들의 연구는 다른 언어들의 보문소와 비교하여 之의 보문소적 성격을 전면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크다. 다만 특정 언어에서

14) 그는 중국어 관형절은 開車的人처럼 명사와 공지시가 되어 생략된 성분이 존재하는 관계절과 我去旅遊的計劃처럼 명사 앞에서 꾸며주는 절이 모든 성분을 갖춰 생략된 성분이 없는 동격 관형절로 나누었다. 이때 的는 관형절 표지로 쓰인다. 또 동사 앞뒤에 地/似的 혹은 得는 좁은 의미의 부사절에 사용되고 시간, 방식, 목적, 원인, 조건, 결과, 정도를 나타내는 分句 역시 넓은 의미의 부사절로 여겼다. 보문소 之 역시 관형절과 부사절에 나타난다.

15) 鄧盾(2015)이 이미 생성문법의 관점에서 之가 포함된 이른바 主之謂구조를 보문소구(CP)로 분석하였고 영어의 that절과 비슷한 정형절로 보았다.

www.kci.go.kr

몇몇 보문소만을 대상으로 비교 조사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영어는 that, if, for, 한국어는 완형보문에 나타나는 인용격 보문소 -고만을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之의 보문소적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之와 다른 언어들 간의 보문소의 대응 관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편 楊萌萌(2019)역시 之를 보문소로 분석하였으나 鄧盾(2015), 田源·徐傑(2016)이 이른바 主之謂구조를 정형절로 본 것과 달리 비정형절이라고 주장하였다.[16] 또 景黎黎·洪波(2019)는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主之謂구조는 小句名詞化(clausal nominalization)에 해당되며 명사성보다는 동사성 범주에 가까우나 어기나 인식 양태적 요소는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았다. 이처럼 之가 포함된 주술구조의 정형절 여부 및 의미 범주는 여전히 학자들 간의 논란 대상이다. 이는 굴절 여부가 명확한 인구어와 달리 형태 변화가 부족한 중국어의 특징으로 인한 것이다.

더욱이 선진시기 보문소 之는 거의 대부분의 종속절에 나타난다. 반면 그에 대응하는 영어나 한국어 보문소는 다양하며 모문 동사의 의미 특성에 따라 보문소의 선택이 달라진다. 따라서 之가 포함된 보문을 갖고 대응되는 한국어와 영어 번역문을 비교해보면 之가 사용된 보문의 정형절 여부 및 통사의미 기능에 대해 좀 더 명확해질 것이다. 따라서 아래 장에서는 ≪孟子≫에서 之가 나타나는 명사절 즉 주어절과 목적어절 및 부사절을 중심으로 영어와 한국어 번역문과 비교해보고 세 언어 간의 보문의 구성 방식 및 보문소 간의 대응관계를 살펴본다.[17]

16) 그녀는 之가 포함된 주술구조가 단독으로 출현하는 경우 정형절로 보기 힘들다고 보았으나 단독으로 쓰이는 용례가 미미하고 그 생성과정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아 본고에서는 주절과 연결되어 종속절에 나타나는 之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17) ≪孟子≫에서는 之가 통상 보문으로 간주되는 동격 관형절에 쓰이는 예문을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판단문의 서술어 자리에도 출현하지만 그 수량이 미미하여 본고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www.kci.go.kr

## Ⅳ. 보문소 之와 영어, 한국어 보문소와의 대응관계[18]

### 1. 주어절

보문소 之와 결합된 주어절은 명제화된 사건을 가리키며 술어는 이에 대한 평가나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어떤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추론을 나타낸다.

(10) 孟子曰 : "三代**之**得天下也以仁, 其失天下也以不仁." (離婁上 03)
Mencius said, 'It was by benevolence **that** the three dynasties gained the throne, and by not being benevolent that they lost it.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삼대가 천하를 얻**은 것**은 인하기 때문이고 삼대가 천하를 잃은 것은 인하지 못해서이다."

(11) 萬章曰: "士**之**不托諸侯, 何也?" (萬章下 06)
Wan Zhang said, "What is the reason **that** a scholar does not accept a stated support from a prince?"
만장이 물었다. "선비가 제후에게 부탁하지 않음은 무엇때문입니까?"

이때 영어는 that절과 상응하며 절이 길어져 가주어 it으로 대체되고 후행하였다. 한국어는 -ㄴ 것 혹은 -음으로 번역되었는데 이 둘은 대부분의 환경에서 대체될 수 있다.[19] that절은 시제가 나타나는 정형절이고 -음 혹은 -ㄴ 것은 종결어미가 생략된 불구보문이다. 이때 한국어는 주격조사 이/가가 아니라 화제조사 은/는으로 번역되는데 주어절의 명제 성분이 행위격이 아니라 일종의 대상격으로 화제로도 간주됨을 알 수 있다.[20]

18) 본장의 ≪孟子≫ 원문 및 영어 번역문은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에서 인용하였다. ≪孟子≫의 한국어 번역문은 성백효의 ≪孟子集註≫를 참고하였다.
19) 김흥수(1993) 참조.
20) 정주리(1995) 참조.

www.kci.go.kr

아래 역시 주어절은 이미 발생하여 객관화된 사건을 술어는 그 사태의 원인을 추론한다. 이때 쓰이는 영어와 한국어 보문소는 앞과 다소 다르다.

(12) 孟子謂樂正子 曰 : "子之從於子敖來, 徒餔啜也." (離婁上 25)
Mencius, addressing the disciple Yue Zheng, said to him Your coming here in the train of Zi Ao was only because of the food and the drink.
맹자께서 악정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네가 자오를 따라서 **온 것**은 한갓 먹고 마시기 위해서이네."

(13) 孟子曰 : "君子之戹於陳蔡之閑, 無上下之交也." (盡心下 18)
Mencius said, 'The reason **why** the superior man was reduced to straits between Chen and Cai was because neither the princes of the time nor their ministers sympathized or communicated with him.'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자가 진나라와 채나라 사이에서 곤액을 당**한 것**은 상하와 사귐이 없었기 때문이다."

(12)에서 대응하는 영어는 소유격과 -ing형태를 띄는 동명사 구조를 사용한다. 이는 일종의 관형격 구조로 명사성 정도가 that절보다 강하다.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여전히 주술 관계를 갖는다. (13)은 원인을 강조하기 위해 why라는 보문소가 사용되었다. 한국어는 둘 다 -음 혹은 -ㄴ 것과 상응되고 -까닭, -원인과 같은 명사로도 번역될 수 있다. 이때 서술어는 판단과 단정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다가 쓰였다.

어떤 사태에 대한 판단과 추론은 옳다, 그르다와 같이 형용사 술어와도 결합된다. 영어 역시 형용사가 절 주어를 가지는 경우 주어 자리에 출현한 명제에 대한 진실성이나 확실성, 어려움과 같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 경우가 많다.[21]

(14) 前日之不受是, 則今日之受非也 ; 今日之受是, 則前日之不受非也.(公孫

21) T. Givon(1993/2002:201) 참조.

www.kci.go.kr

丑下 03)
If your declining to accept the gift in the first case was right, your accepting it in the latter cases was wrong. If your accepting it in the latter cases was right, your declining to do so in the first case was wrong.
전일에 받지 않은 것이 옳다면 오늘날 받은 것은 그르고 오늘날 받은 것이 옳다면 이전에 받지 않은 것이 잘못이다.

한국어도 절이 주어로 사용되면 주로 판단의 의미를 갖는 좋다, 싫다 등의 주관 동사나 쉽다, 어렵다 등의 형용사가 나타난다.[22] (14)에서 주어절은 -ing동명사 형태를 취하거나 -음이나 -것으로 번역될 수 있다.

之가 포함된 주어절은 비유동사와도 자주 결합된다. 비유 역시 판단의 결과로 어떤 객체화된 한 사건이나 현상을 다른 사건이나 현상에 빗대어 설명한다.

(15) 民之望之若大旱之望雨也. (滕文公下 05)
the people's longing for him was like their longing for rain in time of great drought.
백성이 〈탕왕의 정벌을〉 바라는 것이 큰 가뭄에 비를 바라는 듯이 하였다.
(16) 人之有是四端也, 猶其有四體也. (公孫丑上 06)
Men have these four principles just as they have their four limbs.
사람이 이 사단을 가지고 있음은 사람이 사지가 있음과 같다.

(15~16)에 쓰인 若, 猶는 유사함을 나타내는 동사이다. 대응되는 영어 번역문은 -ing절을 사용하거나 보문소가 출현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수사적 효과를 위해 목적어절에도 之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는 마찬가지로 -음 혹은 -ㄴ 것으로 대응된다.

22) 김기복(1996) 참조.

www.kci.go.kr

## 2. 목적어절

之가 포함된 목적어절과 주로 결합하는 동사는 (15~16)의 비유동사를 제외하고 아래의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보다, 듣다와 같은 지각 동사가 오는 경우이다.

(17) 陽貨矙孔子之亡也, 而饋孔子蒸豚. (滕文公下 12)
Yang Huo watched **when** Confucius was out, and sent him a roasted pig.
양화는 맹자가 없는 **때**를 엿보아 그에게 삶은 돼지고기를 보냈다.

(18) 吾聞**其**以堯舜之道要湯, 未聞以割烹也. (萬章上 07)
I have heard **that** Yi Yin sought an introduction to Tang by the doctrines of Yao and Shun. I have not heard that he did so by his knowledge of cookery.
나는 그가 요순의 도로써 탕왕에게 요구했다**고** 들었지, 요리로써 했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

대응되는 영어 번역문에 when과 that이 보문소로 쓰였다. 한국어는 (17)에서는 -때나 -ㄴ 것을 사용하였고 (18)에서 -고로 번역되었다. -고는 간접 인용을 이끌며 시상 어미뿐 아니라 종결 어미까지 결합된 완형 보문소이다. (18)에서 其는 소유격 3인칭대명사로 많은 학자들이 N+之의 변이형로 보며 의미상으로는 여전히 주술 관계를 갖는다.

알다, 인식하다와 같은 인지 동사 뒤에도 보문이 온다. 영어는 that, 한국어는 -음이나 -ㄹ 것과 결합된다.

(19) "周公知**其**將畔而使之與?" (公孫丑下 09)
Did the duke of Zhou know **that** he would rebel, and purposely appoint him to that office?
주공은 그가 장차 배반**할 것**을 알면서 시켰습니까?

www.kci.go.kr

(20) 不識王之不可以爲湯武, 則是不明也. (公孫丑下 12)
If he did not know **that** the king could not be made a Tang or a Wu, that showed his want of intelligence.
만약 왕이 탕왕과 무왕같은 성인이 될 수 없**음**을 몰랐다면 이것은 지혜가 밝지 못한 것이다.

이때 영어와 한국어 번역문에는 모두 시상표지가 나타난다. 한국어는 (19)-것이 -ㄹ가 결합하여 미래를 표시하고 (20)은 가능을 나타내는 -수와 결합되었다. 이처럼 한국어 -음과 -ㄹ 것은 종결어미가 변화되는 불구보문으로 비정형절의 형태로 보이지만 시상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정형절의 요건을 일부 충족한다.

감정동사 뒤에도 원인 사건이 되는 목적어 보문이 나타난다.

(21) 今王亦一怒而安天下之民, 民惟恐王之不好勇也."(梁惠王下 03)
Let now your Majesty also, in one burst of anger, give repose to all the people of the kingdom. The people are only afraid **that** your Majesty does not love valour.
지금 왕께서 한번 노하시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히 하신다면 백성들은 행여 왕이 용맹함을 좋아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22) 王若隱**其**无罪而就死地, 则牛羊何擇焉? (梁惠王上 07)
If you felt pained by its be**ing** led without guilt to the place of death, what was there to choose between an ox and a sheep?
왕께서 만일 그 죄 없이 사지로 나아**감**을 측은히 여겼다면 소와 양은 어찌 가리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한국어는 -음이나 -것으로 번역할 수 있다. (22)는 전치사 by뒤에 -ing동명사 형태가 나오면서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자를 강조한다.

욕구나 의지동사 뒤에도 之가 포함된 목적어 보문이 온다. 이때 한국어는 보문소 -기가 사용되었다.

www.kci.go.kr

(23) 王如知此, 則無望民之多於鄰國也. (梁惠王上 03)
Since your Majesty knows this, replied Mencius, you need not hope that your people will become more numerous than those of the neighboring kingdoms.
왕께서 만일 이것을 아신다면 백성이 이웃 나라보다 많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24) 有楚大夫於此, 欲其子之齊語也, 則使齊人傅諸? (滕文公下 06)
Suppose that there is a great officer of Chu here, who wishes his son to learn the speech of Qi. Will he in that case employ a man of Qi as his tutor, or a man of Chu?
여기 초나라 대부가 있는데 그의 아들이 제나라 말을 하기를 원한다면 제나라 사람에게 배우게 하겠는가?

한국어의 대표적인 명사화 보문소 -음과 -기는 서로 대립적 분포를 보인다. -음은 과거에 이미 발생한 일이나 습관적인 행위에 주로 쓰이고 -기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결정되지 않은 일에 쓰인다.[23] 욕구나 의지동사는 아직 발생하지 않는 사건과 함께 나타나며 때문에 -기를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4)에서 영어는 to부정사절을 사용하였다. to부정사절은 that절보다 보다 미래지향적일 때 쓰인다.[24]

### 3. 부사절

王力(1958/1980)은 之가 也와 함께 쓰여 항상 시간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孟子≫에서도 之가 포함된 부사절이 시간적 배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23) 이익섭·채완(2009:390)은 한국어 보문소 '-음'은 [+결정성, +실체성]의 의미를 '-기'는 [-결정성], [-실체성] 등의 의미를 나타내며, -음은 명사성에 가깝고 -기는 보다 동사성에 가깝다고 보았다.

24) 최규정(2005), 신효수(2018) 참조.

www.kci.go.kr

(25) 公都子曰："滕更之在门也, 若在所礼. 而不答, 何也？"(盡心上 43)
The disciple Gong Du said, 'When Geng of Tang made his appearance in your school, it seemed proper that a polite consideration should be paid to him, and yet you did not answer him. Why was that?'
공도자가 말했다. "등경이 문하에 있을 **때**에 예우할 바가 있는 데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어째서입니까?"

(26) 孔子之仕於魯也, 魯人獵較. 孔子亦獵較. (萬章下 13)
When Confucius was in office in Lu, the people struggled togetherfor the game taken in hunting, and he also did the same.
공자는 노나라에서 벼슬할 **적에** 노나라 사람들이 사냥감을 비교하는 놀이를 하자 공자 또한 함께 했다.

이때 영어 번역문에서는 when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어는 -ㄹ에 의존명사인 -때, -적, 그리고 조사 -에가 함께 사용되었다.

다음은 조건이나 가정 의미를 갖는 부사절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27) 人之可使爲不善, 其性亦猶是也. (告子上 02)
When men are made to do what is not good, their nature is dealt with in this way.
사람이 불선하게 하**면** 그 본성이 역시 그러하다.

(28)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離婁下 03)
Mencius said to the king Xuan of Qi, When the prince regards his ministers as his hands and feet, his ministers regard their prince as their belly and heart.
임금이 신하보기를 수족과 같이 하**면** 신하도 임금을 배와 심장같이 여긴다.

둘 다 영어는 when, 한국어는 -면으로 번역되었다. 조건이나 가정은 허구적이더라도 어떤 사건의 발생이 전제되어 시간 의미를 내포하는 -when으로 번역될 수 있다.

之가 삽입된 부사절이 범위나 방식을 나타내기도 한다.

www.kci.go.kr

(29) 堯舜之治天下, 豈無所用其心哉. (滕文公上 04)
In their governing the kingdom, were there no subjects on which Yao and Shun employed their minds?
요순이 천하를 다스림에 어찌 그 마음쓰신 바가 없으시리오?

(30) 堯之於舜也, 使其子九男事之, 二女女焉. (萬章下 15)
There was Yao's conduct to Shun: He caused his nine sons to serve him, and gave him his two daughters in marriage.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그의 아홉 자식으로 하여금 섬기게 하고 두 딸을 시집보냈다.

대응되는 영어 번역문에서는 전치사 in을 사용하였고 한국어는 -음 뒤에 조사 -에, -에게가 사용되었다. 위 예문들은 일종의 화제 구문으로도 볼 수 있는데 특히 (30)의 영어 번역문을 보면 알 수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문두에 화제 성분이 자주 나오는데 영어는 주어 중심 언어로 위와 같이 제시문의 형태를 취하였다.

그동안 부사절에 출현하는 之는 생략되어도 무방하기 때문에 이른바 명사화 표지로 보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李佐豐(2002)은 之가 포함된 주술구조는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을 진술하는 주술구조와는 다르며 사람의 의식 속에 개념으로 존재하는 어떤 사건이나 상황으로 대화 쌍방이 알고 있는 전제로 보았다. 때문에 일종의 화제성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었다. 화제는 반드시 명사성 성분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위의 부사절에서 之는 화제 표지로도 볼 수 있다.[25]

## 4. 소결

지금까지 之가 주어와 목적어절 그리고 부사절에 사용되는 경우 영어와 한국어 보문소와의 대응관계를 살펴보았다. 주어와 목적어절에 출현하는 보문은 명사적으로 기능하며 영어의 경우 주로 that, -ing형태로 번역되었

25) 화제기능에 대해서는 李強(2017) 참조.

www.kci.go.kr

다. 한국어는 주로 -음이나 -ㄴ/ㄹ 것 등과 대응 관계를 갖는다. 다만 목적어절이 욕구나 의지동사 뒤에 나올 때 -기, -to로 번역되었다. 부사절의 경우는 주로 시간의미를 가지며 영어는 when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어는 다양한 의존명사에 관련 조사를 결합하였다.

박상수(2012)는 영어의 -ing동명사 절은 한국어 -음과 대응되고 that절은 -ㄴ 것, -다와 대응되고 -기는 to부정사 절과 대응 관계를 갖는다고 보았다. 이는 형태를 고려한 것으로 -음과 -것은 총칭적인 사건에 쓰일 때는 큰 차이가 없지만 이미 발생한 사건을 가리킬 때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 또 그동안 之가 포함된 주술구조의 정형절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之가 포함된 주술구조 역시 간혹 시상표지가 동반되기 때문에 정형절로 볼 수 있다. 다만 之가 포함된 주술구조는 주어절과 목적어절에서 정형절인 that절 이외에 ing동명사형태로도 자주 번역되는 경우를 보아 비정형절로 볼 수 있다. 특히 之가 포함된 주술구조는 아무런 시상표지가 없지만 영어와 한국어 번역문에서는 시상표지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명사성 정도가 이들보다 강해보인다. 지금까지 세 언어 간 보문소의 대응관계는 대략 아래 표와 같다.

| 고대중국어 | 영어 | 한국어 |
|---|---|---|
| 之(주어/목적어절) | that | -것, 음, -고 |
| | -ing | -음, -것 |
| | (for)-to | -기 |
| 之(부사절) | when, -ing | -때, -적, -면, -(ㅁ)에 |

## Ⅴ. 보문소 之의 기원과 소멸

Heine & Kuteva(2002:329)는 범언어적으로 향격(allative), 지시대명사(demonstrative), 관계절(relative), 발화동사(say) 등이 보문소로 문법화되었

www.kci.go.kr

음을 밝혔다. 그 중 지시대명사가 보문소로 문법화된 전형적인 예로 that을 들 수 있다. 지시대명사 that은 아래의 과정을 거쳐 보문소로 변화되었다.[26] I think that과 he is dead와 같은 두 문장이 I think that he is dead로 병치되는 과정에서 원래 지시대명사인 that의 모음 발음이 [æ]에서 [ə]로 약화되어 뒷 절에 포함되는 느낌이 들면서 절을 유도하는 어휘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본래 지니고 있던 지시 의미가 약화되고 통사적 기능도 달라지면서 접속사 또는 보문소라는 새로운 범주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고대 중국어 之 역시 지시대명사에서 보문소로 문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之는 원래 선진시기 이동의미의 동사와 지시·인칭 대명사, 관형어 및 관계절 표지, 보문소 등 매우 다양한 용법으로 쓰였다. 다만 that이 지시대명사에서 바로 보문소로 문법화된 것과 달리 之는 관형어 혹은 한정어표지(attributive marker)라는 과도기적 단계를 거쳤을 것이다. 왜냐하면 that은 지시대명사로서 보문 앞에 바로 나타날 수 있지만 之는 보문의 내부인 주어 뒤 서술어 앞에 출현하기 때문이다.

Yue(1998)는 주술구조에 출현하는 之를 문장이 아니라 구임을 표시해주는 한정어 표지로 보고 다음과 같은 발전 단계를 제시하였다. 갑골문 시기 之는 '가다'의미의 직시 동사(deictic verb)와 지시대명사(demonstrative pronoun)로 쓰였다. 금문시기에는 명사성 성분 뒤에 그것을 재지시하는 復指대명사로 출현하였다. 그 후 점차 두 명사성 성분을 이어주는 관형어 표지로 변하고 之 앞에 동사성 성분이 오면서 이른바 관계절 표지가 된다. 마지막으로 之 뒤에 동사성 성분이 오면서 한정어 표지 즉 본고에서 말하는 보문소로 문법화되었다.[27]

之(이동동사, 지시대명사)(NP)　　貞不其之/與之盟而赦之
↓

26) 이는 Jespersen(1965)의 논의로 최규정(2004)을 참고하였다.
27) 아래 예문은 Yue(1998)에서 인용하였다.

www.kci.go.kr

NP [之(復指대명사) NP] 汝畢公之孫
↓
NP/VP 之(관형어/관계절표지) NP 唐棣之華/綿綿生之瓜
↓
NP 之(한정어표지/보문소) VP 心之憂矣

하지만 之는 가다라는 직시동사에서 바로 보문소로 변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Heine & Kuteva(2002:329)는 향격(allative) 역시 보문소의 근원으로 보고 to를 그 근거로 제시하였다. (a)We handed the box to the Gypsy. (b)We want to ask you a few questions와 같은 예문에서 to가 향격 표지에서 보문소로 변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볼 수 있다. Dixon(1984)은 to부정사는 목적과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에서 유래되어 의지를 가지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 원하는 경우에 사용된다고 보았다. 즉 to는 방향의미를 갖는 전치사에서 발전되어 미래시점 혹은 비실현, 잠정적 의미를 나타낸다.[28] 그리고 문법화의 보편적 경로를 예상해볼 때 전치사 to는 어디로 향해가는 이동 동사에서 발전되어왔을 확률이 크다.

공교롭게도 之 역시 to와 마찬가지로 향하다, 가다와 같이 이동 의미를 갖고 있다. 또한 to부정사절은 상위절과 결합할 때 의미상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之와 유사하다.[29] 하지만 之는 여전히 지시대명사에서 보문소로 문법화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왜냐하면 to부정사절은 주로 아직 실현되어 있지 않는 사건을 가리키며 화자의 의지, 소망, 의도가 내포된 경우에 쓰이는 반면 之가 포함된 보문은 대개 총칭적인 사건이나 객관적으로 이미 존재했던 사건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럼 보문소 之가 한대 이후 점차 사라진 원인은 무엇인가?[30] 魏培泉

28) Dixon(1984)의 견해는 이필환(2007) 참고.
29) 김상기(2006)에 따르면 전치사 to는 목표(goal)를 향한 경로(path)의 개념을 나타낸다. for-to보문에서 for뒤의 주어는 보문의 수행자로서 기능하며 예기되는 목적지로 향한 움직임을 나타낸다.
30) 王洪君(1987), 大西克也(1999), 魏培泉(2000) 참조.

www.kci.go.kr

(2000)은 之의 불필요성과 기능상의 부족을 이유로 제시하였다. 주술구조에 출현하는 之는 선진시기부터 생략되는 경우가 많았고 후인들이 그 생략 조건을 이해하지 못해 점차 소멸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之가 다양한 종속절에 사용되면서 의미 변별이 어려워지고 특히 주어가 없는 서술어 성분은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當, 若, 之時, 所以, 則, 之故 등과 같은 접속사로 대체되었다고 보았다.[31]

마지막으로 유형론적 관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보았듯이 보문소는 대체로 주절과 종속절인 보문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항 중심 원리를 따른다. 그런데 고대 중국어에서 보문소 之는 보문 내부인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한다. 보문소가 보문을 이끄는 표지로 상위절인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주는 표지라고 본다면 之는 이런 연계 기능이 부족하다. 영어도 문두의 that절이 길어지면 가주어 it으로 대체하고 후행시킨다. 이로 인해 that절은 상위문의 술어와 이어지면서 연계항 중심 원리를 따르게 된다. 중국어 역시 후대로 갈수록 일종의 보문소로 볼 수 있는 접속사나 후치사가 보문의 양 끝단에 오게 되어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주고 경계를 짓는 표지로서 기능한다. 결국 대부분 종속절에 나타나는 之의 의미상의 모호함과 더불어 기능상의 문제가 之의 소멸을 가속화시킨 계기로 보인다.[32]

## Ⅵ. 나오는 말

고대 중국어에서 주술구조에 나타나는 之는 보문소의 역할을 수행한다. 언어 유형론에서 보문소는 보문의 양 끝단에 위치하며 동사와 목적어 어

31) 王洪君(1987)은 ≪孟子≫와 동한시기 趙岐의 주석을 비교하였는데 昔者文王**之**治岐也, 耕者九一, 仕者世祿이 趙岐의 주석에서는 言往者文王爲西伯**時**, 始行王政, 使岐民修井田...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다.

32) 현대 중국어의 N的V구조의 的는 고대 중국어의 之의 기능을 계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楊萌盟(2019) 참조.

www.kci.go.kr

순 즉 핵의 위치와 보문소 위치가 일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보문소는 VO어순에서는 보문 앞에 나타나고 OV어순에서는 보문의 끝에 위치한다. 이로 인해 보문소는 보문과 모문을 연결해주는 연결항 중심 원리를 따르게 된다. 그런데 고대 중국어의 之는 보문의 내부인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하는 매우 특수한 예에 속한다.

보문소 之는 주어절과 목적어절, 부사절에 주로 출현한다. 주어절은 명제 내용에 해당되고 그에 대해 판단이나 추론, 평가하는 서술어와 결합한다. 목적어절은 주로 비유, 지각, 인지, 감정, 욕구 동사와 결합된다. 부사절은 시간, 조건, 가정, 범위 등의 부가의미를 전달한다. 주어절과 목적어절에서는 대체로 영어는 that과 -ing, 한국어는 -음, -(ㄴ/ㄹ) 것 보문소와 대응관계를 갖는다. 보문의 내용이 미래지향적일 경우 to나 -기 보문소와 대응한다. 부사절에서는 when, -때 등 관련 의미의 의존명사와 결합한다. 之가 포함된 보문은 간혹 시상표지를 동반하여 정형절로 볼 수 있지만 대응되는 한국어나 영어의 보문과 보문소의 사용을 비교해볼 때 비정형절 요건도 다소 갖추고 있다.

보문소 之는 지시대명사에서 復指대명사, 관형어, 한정어표지의 과도기적 단계를 거쳐 문법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은 之가 보문 내부의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위치하는 점에 근거한다. 보문소 之의 소멸 원인 역시 그 출현 위치에서 찾을 수 있다. 보문소는 주절과 종속절 즉 보문 사이에 위치하여 연계항 중간 원리를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之는 보문 내부에 위치하여 주절과 종속절을 이어주지 못함으로써 보문소로서 기능상의 한계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종속절에 출현하면서 생기는 의미적 모호함으로 인해 점차 다른 접속사로 대체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 ＜참고문헌＞

강혁진, 〈영어-to부정사와 동명사의 의미론적 속성과 용법: 동사의 보문으

www.kci.go.kr

로서의 to-부정사와 동명사를 중심으로〉, ≪신영어영문학≫ 57집, 2014.
김기복, 〈명사화 보문소 '-음'과 '-기'의 연구〉, ≪어문연구≫ 제28집, 1996.
김상기, 〈for-to 보문절의 의미와 기능〉, ≪현대문법연구≫ 43, 2006.
김흥수, 〈명사화 관련 '것'구조에 대한 의미·기능적 접근〉, ≪어문학논총≫ 12권, 1993.
남기심·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1985.
넥서스영어교육연구소, ≪THIS IS GRAMMAR≫, 중급 1·2, 2011
박상수, 〈한국어 복문에서 명제용언이 선택하는 보문과 보문소〉, ≪현대문법연구≫ 68, 2012.
성백효, ≪孟子集註≫, 전통문화연구회, 1997.
신효수, 〈영어 보문소의 특성과 동사유형별 보문구조〉, ≪journal of international culture≫ 11.2, 2018.
안명철, 〈보문의 개념과 체계〉, ≪국어학≫ 33, 1999.
이익섭·채완, ≪국어 문법론 강의≫, 학연사, 1999/2009.
이필환, ≪영어의 통사 변화-부정과 대명사와 부정사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문화사, 2007.
정주리, 〈국어 보문 동사의 통사·의미론적 연구〉, ≪한글≫ 228, 1995.
조경화, 〈독일어와 한국어 종속절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 -보문절과 관계절을 중심으로〉, ≪독어교육≫ 제75집, 2019.
최규정, 〈보문소 that을 취하는 동사에 관한 연구〉, ≪언어학≫ 12.4, 2004.
최규정, 〈부정사 보문에 대한 연구〉, ≪영어영문학연구≫ 31, 2005.
大西克也, 〈漢語法中的"主之謂"結構及其曆史演變〉, ≪第一屆國際先秦語法研討會論文集≫, 1999.
鄧盾, 〈上古漢語"主之謂"結構的句法分析及相關問題〉, ≪語言學論叢≫ 51輯, 2015.
何樂士, ≪左傳虛詞研究≫(修訂本), 北京: 商務印書館, 1989/2004.
金立鑫, ≪언어유형학이란 무엇인가≫(什麼是語言類型學), 최재영·안연진·

www.kci.go.kr

김동희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15.
景黎黎、洪波, 〈從跨語言視角看上古漢語的"主之謂"結構〉, ≪當代語言學≫ 第2期, 2019.
李強, 〈上古漢語"主之謂"結構的話題性及相關問題〉, ≪古漢語研究≫ 第2期, 2017.
李佐豐, ≪上古漢語語法研究≫, 北京: 廣播學院出版社, 2002.
劉丹青, 〈語法調查與研究中的從屬小句問題〉, ≪當代語言學≫ 第3期, 2005.
陸丙甫、金立鑫, ≪중국어 연구자를 위한 언어유형론≫(語言類型學教程), 문영희·신수영·이소림·이옥주·이현선 역, 서울: 한국문화사, 2018.
呂叔湘, ≪中国文法要略≫, 北京: 商務印書館, 1942/1982.
沈家煊、完權. 〈也談"之"字結構和"之"字的功能〉 ≪語言研究≫ 2, 2009.
田源、徐傑, 〈上古漢語用於取消句子獨立性的"之"與標句詞理論〉, ≪語言科學≫ 第6期, 2016.
王洪君, 〈漢語自指的名詞化標記"之"的消失〉, ≪語言學論叢≫ 14, 北京: 商務印書館, 1987.
王力,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1958/1980.
魏培泉, 〈先秦主謂間的助詞"之"的分布與演變〉, ≪中研院曆史語言研究所集刊≫ 71, 2000
張敏, 〈從類型學看上古漢語定語標記"之"語法化的來源〉, ≪語法化與語法研究≫(一), 北京: 商務印書館, 2003.
楊萌萌, 〈"主之謂結構的句法"〉, ≪中國語文≫ 第3期, 2019.
朱德熙, 〈自指與轉指〉, ≪方言≫ 第1期, 1983.
Givon, T. *English Grammar, a Function-Based Introduction*. 1993, 김은일, 박기성, 채영희 역, ≪기능 영문법≫ 서울: 도서출판 박이정, 2002.
Greenberg.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 MIT Press, 1963.
Heine & Kuteva.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the

www.kci.go.kr

press of the university of cambridge, 2002.
Whaley, Lindsay J. *Introduction to Typology-the Unity and Diversity of Language*. 1997, 김기혁 역, ≪언어유형론-언어의 통일성과 다양성≫, 서울: 소통, 2008.
Yue, Anne O. "Zhi 之 in Pre-Qin Chinese". *T'oung Pao Second Series* 84, 1998.
中國哲學書電子化計劃(https://ctext.org/zh)

##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iscuss the Zhi from the perspective of cross-linguistics by seeing Zhi as a type of a complementizer that appears in the inner structure of subject-predicate. In the first place, it examines the universality of a complementizer through the examples of Korean and English. Based on this, the particularity of 之 as a complementizer in ancient Chinese will be discussed in this study. Second of all, it examines the correspondence relations and conditions of the complementizers of three languages by comparing the examples of complementizer '之' with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 used in the book titled Mengzi, which is the representative literature in the pre-qin period. Lastly, it investigates the origin and cause of extinction of a complementizer, '之' from the typological perspective.

Key Words : 보문소(complementizer), 之(Zhi), 유형학(typology), 비교언어학(cross-linguistics)

www.kci.go.kr

www.kci.go.kr